



미국과 차세대 위해 교계, 다시 힘 모은다 = 8일 오전 트랜스젠더 화장실법 폐지를 위해 모인 남가주교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트랜스젠더 화장실법 AB1266 폐지’ 교계 배수진 치며 강경대응

해당 법안, 성 정체성 혼돈 초래함은 자명한 일
 남가주 교계, 차세대 보호 위해 서명운동 추진

“이러바 ‘화장실법’은 서류에 공식 기록된 성정체성(Sex)에 상관없이 사회·인 지적 성향에 맞춰 그날 그날의 성정체성(Gender)에 따라 화장실, 락커룸, 샤워장 이용이 가능한 법안으로, 자라나는 차세대들을 윤리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남가주교계가 또 다시 미국과 차세대들을 위한 서명운동에 힘을 모은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선교단체 자마(JAMA, 김춘근 대표) 관계자

들은 8일 기자회견에서 ‘트랜스젠더 화장실법 AB1266’을 폐지하기 위해 교계 차원에서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학생준법’이라 명명된 AB1266 법안은 지난 8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내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킨더가든부터 12학년대에 속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

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참여하고 싶은 학교 스포츠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이면서 성전환 수술을 해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하는 학생은 여학생 화장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지지하려는 사람은 성소수자 차별로 처벌을 받게 된다. >> 10면으로 이어짐
 토마스 맹 기자

연방대법원 3대 소송 기도할 권리, 낙태 그리고 오바마케어

그리스 대 갈로웨이
 맥컬린 대 코클린
 행정부 대 하이로비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방정부의 공공 모임시 기도할 권리, 주정부의 낙태에 관한 자체 규정,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에 대한 종교단체의 거부권 등 논쟁적 주제를 새 회기에 다루게 된다. 먼저 지방 정부의 기도 권리에 대한 소송(Greece v. Galloway)이다. 뉴욕 주에 위치한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을 함에 있어서 늘 기도를 해 왔다. 이 기도 순서는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배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았으며 기도 인도자들도 매우 포용적인 내용으로 기도해 왔다. 기도자는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지만 간혹 유대교, 바하이교인도 기도를 맡은 적이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두 여성은 이 문제에 대해 “비기독교인인 우리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법원에 제소했다. 뉴욕 지방법원은 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으나 뉴욕 제2항소법원은 지난해 만장일치로 판결을 뒤집었다. 현재 타주의 경우는 만약 기도가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11월 6일부터 구두 변론이 시작되는 이 소송은 미국 전역의 지방 정부들의 종교 자유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최근 “시 정부의 기도할 권리”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기도가 대부분 기독교적일지라도 시 정부에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의 발표는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기 전 이뤄져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는 1983년 마쉬 대 챔버스 소송(Marsh v. Chambers)으로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바 있다. >> 8면으로 이어짐

김영성 기자 김준형 기자

공립학교 ‘LGBT 위인들’ 교육한다

리버티카운슬, 학부모들에게 주의 요청

미국의 기독교 계통의 범불단체인 리버티카운슬이 10월을 맞이해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10월은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LGBT History Month”로 지키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은 미국 역사 속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물에 관해 배운다. 더 정확히 말하면, LGBT 인물들은 본받을 만한 위인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단체의 맷 스테이버 회장은 “만약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성이 아닌 과학이나 수학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교사와 교장, 학교 이사회에 건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번 10월에 공립학교 학생들이 배우게 될 주요 인물 중 하나는, 2002년 10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피살 사건의 피해자 에디 아라우조 주니어 씨다. 당시 17세였던 아라우조 씨는 남성이었지만 여성이 되고 싶어 그웬이란 이름을 갖고 여성으로 행동하다, 20대 청년 4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 이 사건 후, LGBT 그룹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아라우조 씨를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리버티카운슬은 “성과 관련된 폭력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이 단체는 최근 뉴저지 주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것에 반대해 소송을 냈다. 현재 캘리포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워싱턴DC에서 동일한 법이 제정·추진 중이며, 정신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영성 기자 김준형 기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KIM Mission 제44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 라오스 세미나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 Missio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KIM Mission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NJ, 베다니교회), 김윤환 목사 (미육군군목), 이영선 목사 (NY, 모어교회), 강태원 목사 (TX, 생명수정교회), 박병배 목사 (NY, 프선교회), 손찬식 목사 (NY, 신디에고침교회), 황인철 목사 (NY, 이틀다문교회), 김홍식 목사 (TX, 샌페르로영광교회), Rev. Vigi Grant (KY, Eastside Church)

대표: 김경환 선교사 (미육군군목), 이사장: 임이근 장로 (TX, 치과의사), 전임 이사장: 최도문 박사 (TX, 치과의사), 부이사장: 강태원 장로 (뉴저지), 부이사장: 송하균 장로 (메릴랜드), 부이사장: 류지홍 대표 (NY, 사랑방), 부이사장: 황정규 집사 (NJ)

부이사장: 손동우 박사 (NJ), 부이사장: 정정원 박사 (Pulman, WA), 부이사장: 이광현 집사 (NY, JC Global), 부이사장: 이원구 안수집사 (서울), 부이사장: 임재원 집사 (구미K&S대표), 부이사장: 임소영 자매 (NY, 간호사), 부이사장: 강동철 집사 (AZ)

KIM Mission 소개
 KIM Mission은 지난 12년간 진행 되어 온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들의 제2의 헌신 공동체입니다. KIM 미션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며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선교현장 사역을 돕기 원합니다. KIM 미션은 헌신된 평신도 비즈니스멘트를 주축하여 지역한인교회를 선교 비전으로 이끄시는 사역 멘토 목사님들의 멘토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15만명 이상이 수료한 세계적인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 가운데 KIM 미션은 12년간 43차례 한국어 세미나를 통해 350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미주 30회, 선교지 13회) 약 300여명이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가을 인도차이나 3개국 순회(3차례)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가을에는 라오스 한인 연합교회에서 제 44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앞으로 KIM 미션은 세계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으로 조망해 주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의 미국과 전 세계 선교지 및 한인사회에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KIM Mission은 선교에 헌신된 분이라면 누구나 동참하여 평생 동역자요 장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www.KIMMission.org 참조).

“이런 미션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피터 와그너 박사(전 클리신대원 교수)
 “교회부흥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선교에 눈뜨는 일이며, 선교를 향한 4방향성(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시야를 활짝 열어주는 세미나가 바로 이 세계 선교 조망 세미나입니다.”
 - 장동찬 목사 (KIM Mission Chief Ministry Mentor, 베다니교회, NJ)
 “이제야 저는 선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선교를 제대로 하기 원하는 교회라면 교역자는 물론 모든 선교 실행위원들이 반드시 이 세미나를 들어야 합니다!”
 - 서덕희 집사 (KIM Mission 후원회원, 초대교회, NJ)
 “이 세미나는 강의를 들으면 들을 수록 더 세계 선교가 한 눈에 들어오고 구체적인 전략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 강태원 장로 (KIM Mission 부이사장)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1기간 및 장소: 2013.11.13 (수)저녁부터 11.17(주일) 저녁까지, 라오스 한인연합교회 (담임 김기주 목사님, http://cafe.daum.net/laosos)
 | 강사: 김경환 선교사(KIM Mission 대표, 10년간 목회 사역 후 12년간 국제OM선교선 돌로스호 전도부장, 훈련부장 오웬 캠 대표 역임, 현 미육군군목), 임이근 장로 (김 미션 이사장, 스페인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 장로, [주]종림수산 대표), 이원구 안수집사 (김 미션 부이사장, 서울 산은캐피탈 부장), 임재원 집사 (김 미션 부이사장, 구미K&S, Laos 동남소재 대표)
 | 협찬: 기독교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www.oMyGod.us, MP 세미나 국제 동문회, KIM Mission 이사회 & 후원회, 인도차이나/라오스 한인선교사협의회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문의: 626.354.2294 www.KIMMission.org



지난 2년간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강하고 깊은 예배' 운동을 일으켜온 오버플로잉 미니스트리가 오는 17-18일 애너하임 비즈니스엑스포센터에서 <오버플로잉 워십컨퍼런스 애너하임 2013>을 개최한다.

하나님을 강하고 깊게 만나는 예배, '오버플로잉'



강신승 목사

2011년 초, 서울에서 처음 '강하고 깊은 예배'를 접했을 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장 6시간에 걸친 예배가 끝날 무렵, 제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있고,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고 말할 수 없는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강하고 깊은 예배'는 말 그대로 강하고(strong), 깊은(deep)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강하고 깊을수록 예배 음악과 찬양 또한 강합니다.

오늘날 세상 미디어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 청년 대학생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강력한 예배음악과 찬양으로 예배자들의 영을 깨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마음껏 뛰기도 하며, 때론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찬양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강해질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친밀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뛰고 춤추며 강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게 예배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깊은 예배'에는 젊은이들에게 강한 매력을 주는 락(rock)과 같은 강한 음악의 장르를 통해서도 찬양합니다. 혹자는 락을 가리켜 '사탄의 음악', '세상 음악'이라 했지만, 원래 락은 1890년대 흑인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으로 만들어 불렀던 장르였습니다. 그러나 1949년부터 락 장르의 매력을 깨닫게 된 세상 음악인들이 가져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부르는 '세상 음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빼앗겼던 락음악의 장르마저도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강하고뜨겁게 찬양하는 음악으로 바꾸

기를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긴 문화들을 이제 다시 되찾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 문화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강하고 깊은 예배'는 지금껏 세상에 빼앗겼던 귀한 음악들과 춤,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되찾아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기 원하는 예배입니다.

지난 2년간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을 맛보았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온갖 우울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던 친구들이 치유를 받았고, 자살 직전까지 갔던 청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회복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군사들로 쓰임받기를 결단했습니다.

이제, 이 기쁨과 감격을 남가주에 있는 보다 많은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 힘을 모아 이 땅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 강신승목사는 누구?

강신승 목사는 대학 시절 선교단체 네비게이터를 통해 강력한 신앙훈련을 받고 일생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해 탈북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이민교회 청년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2011년 9월 7명의 청년들과 함께 애너하임 오버플로잉교회를개척해 현재까지 5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사역해오고 있다.

<오버플로잉 워십컨퍼런스 애너하임 2013>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버플로잉 워십컨퍼런스 애너하임 2013>은 이땅에 영적으로 무너진 청년들과 다음세대들을 예배를 통해 깨우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오버플로잉 미니스트리(Overflowing Ministry)가 작사·작곡한 강하고 깊은 찬양들이 소개되고, 한·중·일 최고 수준의 예배팀이 찬양과 예배를 이끌어갑니다.

지난 1월 17-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오버플로잉 워십컨퍼런스를 통해 800여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엄청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고 한국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이미 최고 수준의 예배 컨퍼런스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 전문 매거진인 '워십 리더(Worship Leader)'로부터 특별 주목을 받고, 대대적인 소개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는 17-18일 컨퍼런스에는 남가주에 자리한 한국과 중국, 일

본의 약 80여 교회가 연합한 가운데 수백명의 아시안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가주 청년들과 다음세대들을 강하고깊은 예배로 깨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8일 토요일은 이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12시간 동안 끊임 없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가주 땅에 '강하고 깊은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지역교회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큰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	10월 17일 (금) 7:30pm~10:30pm 10월 18일 (토) 10:00am~10:00pm
장소	비즈니스엑스포센터 1960 South Anaheim Way Anaheim, CA 92805
입장료	무료
문의	T. 714-351-343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m.facebook.com/overflowingjoy 에서 확인하면 된다)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jyk@gmail.com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복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체장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신하고 있는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췌장에 인슐린 분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당뇨 개선제 입니다



신제품 소비자공급가 \$76
*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621 S Virgil Ave. Suit #206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PRO-Z

뉴미디어시대에 발맞춘 新목회전략

남가주교협 주최 〈스마트목회전략〉 세미나



지난 1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하에 〈스마트목회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뉴미디어시대에 스마트 목회전략을 소개하는 '뉴미디어 세미나'가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교협(회장 진유철 목사)에서 주최한 세미나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회원 교회들에게 미디어 목회전략을 소개하고 교회 환경에 맞는 스마트폰 목회 및 선교 I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100여명의 남가주 목회자 및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여운영 목사(미주복음방송 뉴미디어 실장), 피터 김 목사(CTS기독교방송 IT미션 디렉터), 김종철 집사(CTS기독교방송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각각 뉴미디어시대 교회의 역할, 뉴미디어시대 스마트목회전략, 클라우드서비스 및 앱제작데모, 클라우드 앱운용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박신욱 목사는 "뉴미디어시대에서 교회의 역할은 미디어 제작과 활용에 있을 것"이라며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할 때 많은 성

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운영 목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디오나 TV, 신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금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접속해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며 "소셜네트워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인터넷 세상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선한 사람이 쓰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쓰면 쓰레기가 나오는 원리로 보된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개방의 시대인데 뉴미디어를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목회라 할 수 있다. 목회자들이 목회에 있어서 유용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배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참가품, 갑옷보조제, 생식, 갤럭시 태블릿 10.1, TV Pad, 뇌보감폴드, 책상 시계 등의 푸짐한 경품이 주어졌다.

토마스 맹 기자

주의사랑선교사역원 주최 세미나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을 주소서”

말세라고 하는 작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보호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을 갖도록 훈련하는 세미나가 한창 열리고 있다. 주의 사랑선교사역원(모니카 백 목사)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바로 그것. 주강사는 모니카 백 목사로 그의 저서인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을 바탕으로 열린 강연을 이어간다.

현재 진행 중인 '신부의영성' 클래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아버지의 마음' 클래스는 일요일 오후 7시부터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열린다. 세미나의 특이점은 등록금이 없고 무료로 숙식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가자는 성경책과 짐낭, 세면도구만 준비하면 된다.

모니카 백 목사는 "사역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 중인 풀러튼복음교회 박정기 목사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육이 깨어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

다"며 "이 시대 잠자고 있는 많은 이들을 깨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는다. 이 세미나를 통해 다시금 복음의 메시지가 마음 깊이 다가왔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은파교회 피터 곽 전도사는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 세미나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세미나라 할 수 있다"며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인디애나 포트웨인한인교회 정종아 사모는 "신앙훈련에 도움이 되는 여러 교재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숙식까지 제공해주는 이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강의를 듣고 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고 눈물이 많이 났다. 마지막 때에 주의 종이 깨어남으로 성도들 또한 깨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등대교회 향희 흠스 선교사는 "흑암의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

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세미나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상급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니카 백 목사는 1980년 백성현 선교사와 결혼하고 1984년 도미해 베데스다순복음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신학석사를 취득했다. 1990년부터 백성현 선교사와 남미 베네수엘라 타문화관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했으며, 2010년 인디애나주 그레이스신학대학원의 선교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그간 베네수엘라 선교사역 중에 나타났던 치유사역을 통해 체험한 복음전도의 효율성을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베네수엘라 원주민교회 협력선교와 베데스다신학대학 교수, 주의사랑선교센터에서 원장으로 활동하며 영성 세미나 사역을 펼치고 있다.

▷주소: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전화: (714) 932-8993, (760) 868-8583 ▷웹사이트: www.godslovemission.com ▷이메일: ocmothergoose@yahoo.com

토마스 맹 기자



▶ 주의사랑선교사역원 건물 외관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테바 선교회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방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공립학교의 심각한 문제들과 대책

남가주기독교연합 새라 김 한인대표



새라 김 대표

캘리포니아 주와 메사추세츠 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대도시 공립학교에서는 현재 5세 유치원생부터 시작해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8가지 이상의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가르치며 세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의 권한으로 자녀들을 정지 면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며 실습한다.

1. 왜곡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에 대한 교육- 학부모들의 동의없이 학교에서 뿐 아니라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친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이 되는 상담까지 받게 한다.
2. 낙태 찬성 교육-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진 교육이다. 자신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면 언제든 낙태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나 허락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하지 않는다. 전폭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분별 없는 '자유'와 '개인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3. 분별없는 성교육- "안전한 성관계는 OK"라고 가르치며, 콘돔이나 피임약 등의 사용을 장려하되 HIV/AIDS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엉성하다. '금욕과 자제(Abstinence Education)' 교육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초등학교생들에게 남녀 사위나 콘돔 선물, 성적으로 자극주는 방법 등 건강하지 않은 성교육을 하고 있다.
4. 반신(反神, Anti-God) 반기독교 교육-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화론 위주의 왜곡된 수업을 행하며, 기독교 가치관과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도록 하는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5. 왜곡된 정치(Political correctness)- 자녀들을 해치는 법안들이 학교 안에 늘어나고 있다.
6. 낮은 학업성취도- 사립학교나 홈스쿨링에 비해 훨씬 낮은 학업 성취도와 학업율을 보이고 있다.
7. 건강치 못한 교제 교육-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교제 실습도가 낮으며 학생들 간의 건강한 교제 또한 매우 적게 이뤄진다.
8. 결여된 안전성-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

교 내 총기사건을 비롯해 도덕성 전반의 타락으로 공립학교들은 사립학교나 홈스쿨링에 비해 훨씬 위험한 장소가 돼버렸다.

9. 비도덕·비인격적 학습- 심각한 개인적인 교육을 통해 도덕과 인격에 대한 교육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논리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10. 반부모 교육- 부모에 대한 존중과 존경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최고로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중심적인 교육이 넘쳐나고 있다.

이상 위에 열거한 미국 내 공립학교의 심각한 문제와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권리를 빼앗아간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 아니다.

▶ **AB 537:** 1999년 당시 주지사였던 그레이 데이비스(Gray Davis)에 의해 AB 537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공립학교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알리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동성애 성전환자들과 친숙해지기 위하여 선생님들로부터 하여금 남장, 혹은 여장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허락한 바 있다.

▶ **AB 1785:** 그레이 데이비스는 2000년에 AB1785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캘리포니아의 주 교육 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로 하여금 공립학교들의 모든 교과서에 '인간관계 교육(human relationship education)'과 '다양성(diversity) 교육'을 집어넣게 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K-12) 필수화 시켰다. 이 교육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도록 하는 교육인데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Diversity"라는 단어가 획기적인 유행을 만들어 내고 10년이 지난 지금 "다양성/포괄성(Diversity)"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기업, 문화, 정치 속까지 깊어지고 21세기 미국의 문화적 흐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또한 이 법안에 의해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친동성애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의무화 됐다.

▶ **SB 71:**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는

2003년에 제출한 SB71을 계속 추진시켜 2008년에 새롭게 뽑힌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와 손을 잡고 성공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SB 71은 공립학교의 '성 건강교육(sexual health education)'의 기준을 매우 비도덕적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도 합의 하에 의해 안전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면 콘돔 사용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가르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를 비롯 양성애, 성전환자와의 성관계도 정상적인 성관계인 것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치도록 돼있다.

▶ **AB 394:** 그레이 데이비스 이후 뽑혔던 공화당 쪽의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2007년에 "괴롭힘 반대운동(anti-harassment)", "차별반대운동(anti-discrimination)"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학교와 학생들, 부모들에게 공공연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장려하는 법안이다. 즉 학교 학습 시간에 포스터나 학교 웹사이트, 뉴스레터 등 가외(extra) 교과서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각종 자료들을 이용해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대해 보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안이다.

▶ **SB 48:** 2010년부터 제출된 이 법안은 한인들도 미국 보수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투쟁했던 법안이다. SB 48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만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K-12)들의 교과서를 바꾸게 만드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교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을 장려하는 법안으로, 2012년 동성애 지지자이며 매우 자유주의 편에 있는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에 의해 통과됐다.

이밖에도 공립학교의 교육수준을 비롯해 도덕적 가치관을 몰락시키는 법안들이 급속히 공립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같은 공립학교의 몰락에 책임을 져

야하는 의원들과 주지사들의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 지금의 공립학교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좋은 학교, 좋은 학군"이라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선 안된다. 크리스천 자녀들에게 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학교, 좋은 학군"이 더 이상 좋지 않을 뿐더러 되려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공립학교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전 교회들과 교역자, 성도들의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 그 대안들을 열거해 보자면,

첫째, 홈스쿨링을 하는 방법이다. 영·유간에 건강한 자녀, 자존감이 높은 자녀들로 키우는 데 이미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이 홈스쿨링을 한 예도 많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교회 사립학교 또는 기독교사립학교를 통한 교육이다. 이미 세워진 좋은 기독교학교에 보내는 것이 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교회에서 문을 열어 사립학교를 시작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간절함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진정한 투자란 잃어버린 교육을 다시 창조해내는 것이다. 교육(공립학교)을 잃어버리면 다음세대를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며 건강하고 더 실력있는 다음세대,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교육(세상에서만 성공하는 교육이 아닌)을 위해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할 때다.

▶ **참고:** TVNEXT.org에서는 현재 홈스쿨링과 교회 사립학교 관련 세미나를 기획 중에 있으며, 해당 자료들을 학부모들이 쉽게 열람 가능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잠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turn from it)."

초스피드 다이어트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때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미용침 · 얼굴축소 (안면지방제거)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미드웨이)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며,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구원의 보장

신명기 11: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신11:1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2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퍼신 팔과 3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시라 5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러 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기운에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7 너희가 여호와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시라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을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우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서 2백여만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이적기사를 나타내 보이셔서 모든 해방의 역사가 가능케 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과 사막에서 여러 초자연적인 이적기사로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자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을 더욱 확증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멸망을 고집하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다 떨어져 멸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본문은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목자의 심정에서 호소하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시기까지는 오늘날의 교회생활과 같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개인 신앙의 바른 중생과 성장, 결실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전제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의 보장과 기대가 확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개통되신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내가 절감하는 만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

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갖가지 구원을 위한 은혜체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의식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철부지 신앙의 자리에서 철든 의리와 인격과 예절을 목적으로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철부지 신앙에 머물러 하나님을 향해 기대만 걸고 하나님이 기대 거시지 못하도록 하는 입장은 오히려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도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요 6:63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결실과 소망을 위해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듣는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인생은 다 멸망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며 순종한 사람들은 영생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후 뒤따르던 모든 애굽인들을 그 물로 덮어 멸하신 일은 구원의 대상과 멸망의 대상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엄격하신 위력을 언제든지 잊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쉬지 않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교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12:5이후-6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했지만 징계를 통해 영원히 멸망시키는 대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의 성과, 회복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여러차례 징계를 하셨으나 끝내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 기대에 어긋났다고 생각이 드실 때 마지막 징계는 유기하심으로 나타났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우리 신앙의 소망적인 발전을 위한 교훈의 목적으로 엮여져가는 일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광야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서 따로 패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서 유명한 어떤 족장 이백오십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적 위치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16:13-14에 "네가 우리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인가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

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고 불평스런 이유를 대며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땅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대열에 끼여 행보는 같이 하고 있었지만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며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 이까"했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회중으로 하여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주변에서 떠나라 하였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의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어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라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 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니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밭의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고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 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된 250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소멸하셨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거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는 상관없이 지난 날 애굽에서의 생활과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꿈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에 가나안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다가갈수록 그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

하며 고집한 결과뿐이었던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러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게 하신 이유는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세의 신령한 소망을 목적으로 신실된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려 백성들 중에서 제거하십시오 경고하시는 교훈의 본을 세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다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시라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땅은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조건으로 보면 애굽은 참으로 살기 좋은 조건이고 가나안은 메마르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나안의 조건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언제나 이른 비(9~10월에 내리는 비)와 늦은 비(3~4월에 내리는 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기 위해 언덕과 골짜기만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의 온전한 결실을 위하여 육신의 생계조건을 가지고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조건을 좇아 살아가지 말고 항상 지켜 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아래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깨닫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기독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p>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애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p>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9월 9일 개강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Revival Conference

부흥성회

남가주 가스펠 교회 창립 31주년 감사부흥성회 및 기념예배

꿈과 희망이 있는 남가주 가스펠교회가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부흥성회 및 창립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칫 지치기 쉬운 우리 이민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활력과 도전을 줄 금번 말씀의 잔치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제 : 하나님의 주권적 교회 - 감사 부흥성회 일정-

10월 18일(금) 오후 7시 30분
10월 19일(토) 오전 6시
10월 19일(토) 오후 7시 30분
10월 20일(주일) 오전 11시

- 창립 31주년 기념예배 -
10월 20일(주일) 오후 4시

강사 박승빈 목사
(렘피스 한인침례교회 담임, 미남침례회 한인총회장 역임)

남가주 가스펠 교회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799-5673 / www.gfkbc.com

담임목사 홍현창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4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 2013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풍성한 교회(담임 박효우목사)**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 381-9490
- 등록비 : \$20(필수)**
- 회비 : \$120이상(성도 1인당 1불씩)**

제출서류

입회후보자들은 제출서류를 2013년 10월 23일(수) 오후 5시까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문의: 총무 양경선목사 (213)255-1725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격**
(1) 회장: 목회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제15조)
(2) 수석부회장: 자기 회기에 회장 자격이 있는 담임목회자(제16조 2항)
(3) 부회장: 목회경력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제15조)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제출 서류**
(1)이력서 (2)교단추천서 (3)목사안수증명서 (4)교회주보 (5)발전기금(캐시어체크)
* 후보자 본회 발전기금: 회장 \$5,000 수석부회장 \$3,000 부회장 \$1,000
- 교단 및 지역연합회 공천위원회 구성**
일시 : 2013년 10월 24일(목) 오전 11시
장소 : 남가주 교협 회의실
- 공천위원회 모임**
일시 : 2013년 10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남가주 교협 회의실
(1) 공천위원: 교협 회장단 추천 6명, 이사회 추천 6명,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12명
(2)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제출서류(10월 23일까지)
① 교단장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명단 2명
② 전화번호 및 이메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회장: 진유철 목사 ■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 office@theckc.org www.theckc.org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New Covenant) 크리스천사립학교

얼마 전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인터넷 웹사이트 몇 군데를 방문했는데, 아니 글세 수천 수만대 중 하나를 선택하려니 벽차기만 했다. 검색 범위를 줄여봐도, 수백대가 났다. 이럴 바에야 그냥 집 근처 중고차 매장에서 적당한 차를 구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사회에는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다. 마켓에 가보라. 동일 품목이라 해도 한 통로에 수십, 아니 수백가지 물건이 진열돼 있다. 한번은 아이가 아파 치킨 수프를 사려고 마켓에 간 일이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사야할지 한참을 고민하며 서성거리기도 했다. 캔 아니면 플라스틱 컨테이너, 이 브랜드 저 브랜드, 큰 것 작은 것, 쌀이 들어있는 것 아니면 면만 있는 것 등등. 혼란스럽기만 했다.

1978년 미국의 유명한 정치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의 풍부함으로 인해 잃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집중력이다."

예리한 관찰이다.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다보니 그저 필요한 정보를 찾고 흡수하는데 바쁘기만 하다. 정보의 신빙성이나 타당성 여부는 아예 분별조차 하지 못한다. 해당 정보에 대해 분별하고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분별력을 개발하지 않으며, 심지어 암기력마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리포트나 리서치를 가르치다 보면 여기서 비롯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와 IT의 발전으로 리포트의 질(quality)이 좋아졌을까? 그렇지 않다. 요즘 학생들은 리포트를 작성할 때, 컴퓨터 자판으로 타이핑하고, 컬러 사진을 삽입하고, 인쇄기로 출력해 걸모양은 그럴싸하게 작성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절(plagiarism)된 것이 많으며, 온라인상에서 여기저기 복사해온 것을 그저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인지 리포트한 내용을 발표하라고 하면 집중팔구 인쇄한 것을 그대로 읽어내려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리포트를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어

떤 연구 주제나 인물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고 읽고 생각하고 나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글이나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리포트 작성에 있어 인터넷 검색엔진은 학생으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tool)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학생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일단 구글(Google) 검색란에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애플의 시리(Siri)에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불안해 하고 짜증도 내며, 때론 멍해 보이기도 하며, 대안이 없어 어쩔 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세대의 맹점(blind spot)이다. 즉 홍수같이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정보 때문에 암기도 안하고 분석도 안하며, 정보의 질도 판단할 줄 모른다 는 것이다.

그나마 초·중학생 시절엔 '리포트'를 쓰지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되면 '리서치 페이퍼(research paper, 연구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정보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별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의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정보 찾기'에만 길들여진 경우 이런 작업 기능(skill)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그 결과 연구문서 작성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요구되는 과목 및 분야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대학 진학 후 뒤늦게 이러한 기능을 배우려고 과외공부까지 하는 학생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학교 차원에서 해결해보고자 연구해온 결과, 기존 시스템과 프로그램 내(內)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1999년 학교 설립 당시에 학급 정원을 10명 안팎으로 정해놓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할당해 리서치 기능을 훈련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분석력을 키우는 교육전략을 채택했고, 리서치 프로젝트를 필수과정에 넣어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6년 전부터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

로그램을 도입해 고등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학교의 여섯 과목(영어, 수학, 과학, 역사, 외국어, 아트·음악) 외에 3가지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것은 개인의 창조적 봉사활동(계획, 실행, 반성 및 리뷰), TOK(Theory of Knowledge), 그리고 14페이지 분량의 리서치 페이퍼(Extended Essay)다. 특히 TOK는 어떤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2년에 걸쳐 교육하는 아주 특이한 과목이다. TOK 수료 후 리서치 페이퍼를 작성하면 연구의 질적(quality) 차이가 금방 눈에 띈다.

인터넷 검색엔진이 존재하기에 분명 세상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암기력과 분별력, 분석력, 발표력이 자동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실력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면에서 실력과 신앙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를 배출하면 장차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 확신한다.

10학년 학생이 와이파이(wi-fi)가 없는 캠프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스마트폰 접속이 안되니 오히려 편하다. 간밤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체크하지 않고 밤새 잠을 푹 잘 수 있었다." 그렇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성은 확실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므로 이런 도구를 잘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다. 방대한 정보,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까지 만드는 이메일, 잠을 설치고 검색해도 끝이 없는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사람을 스펀지같이 흡수만 하는 존재로 전락시킨다.

인간에게 있어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자녀들로 하여금 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신뢰성과 정당성을 파악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며, 행할 바와 절제할 것을 알도록 가르쳐야겠다. 이것이 신앙 다음으로 유익한, 즉 돈보다 더 귀한, 유산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기능과 실력을 갖춘 학생은 요즘같이 썩어가는 대중문화와 왜곡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신선함과 생명력을 소유한, 심상한 물고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I like the science class.
과학 클래스를 좋아합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I am listening to the radio.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Do you ride a bicycle to your school?
학교 갈 때 자전거 타고 가나요?

▷No, I ride the bus to my school.
아니요. 버스 타고 갑니다.

▷What does your mother do in the evening?
당신 어머니는 저녁에 뭘 하시나요?

▷She usually watches TV.
보통 TV를 봅니다.

▷How many days do you go to school a week?
당신은 주중 며칠간 학교에 가나요?

▷I go to school for 5 days.
5일 갑니다.

▷What subject do you like at your school?
당신은 무슨 과목을 좋아하나요?

English (중급 영어)

Mary then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Jesus tells you to do." At the house of the feat there were six stone water jars that were used by the people for washing themselves in the way that their religion said they must. Each jar held about twenty or thirty gallons(John 2:6).

마리아는 그때 하인들에게 말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 하세요." 잔치집에는 여섯 항아리의 물통이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방법으로 몸을 씻는 데 사용됐다. 각 항아리에는 약 20-30갤런의 물을 담겨 돼 있었다. (요2:6)

Augustine used som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Platonism in his view of Christian theism. He asserted that there should be some immutable truths common to all men: such as math, existence, and thought. There should be a cause for all these truths. He explained that the cause should be either equal to, inferior to, or superior to our minds.

어거스틴은 자신의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하는 데 있어 플라톤 주의의 중요 요소들을 다소 차용했다. 그는 또 모든 인간에게 불변의 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 가령 수학이나 실존, 사상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마음에 동등하게 혹은 열등하거나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효식 교수

2013 LA.OC 청년·청소년 부흥집회



한국 중국 일본교회 연합

오버플로잉 워십컨퍼런스 in Anaheim

10.18(금)-19(토) 금. 7:30 PM / 토. 10:00 AM - 10:00 PM

BUSINESS EXPO CENTER ANAHEIM CA / 1960 S. ANAHEIM WAY ANAHEIM, CA 92805

* 금요일 선착순 100명에게 오버플로잉 2집 앨범증정

SPEAKER'

이창호 목사 (서울 넘치는교회 담임)

강신승 목사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

+ OVERFLOWING BAND

+ AND MORE.

VISIT US :

WWW.TOCUSA.COM

WWW.FACEBOOK.COM/OVERFLOWINGJOY

CONFERENCE.TOCUSA.COM

주최:  OVERFLOWING

문의: 714-351-3437

후원: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 크리스천 헤럴드 | HYM



» 기사 1면으로부터 발음

당시 연방대법원은 “의회 개회시 기도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라 판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제2항소법원이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기도자들이 예수, 성령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지중돼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올라와 있다. 하나는 맥컬린 대 코클리 소송(McCullen v. Coakley)이다. 이는 낙태시술소 앞 35피트 내에서 낙태 반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낙태할 여성의 권리와 시위할 권리에 대한 충돌이다. 낙태시술소 앞 35피트는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출입과 관련된 행동만 가능하며 시위하거나 자료를 나눠 주거나 어떤 다른 행동이 불가능하다. 이 소송은 “여성이 낙태를 자유

롭게 할 권리가 우선이나? 이에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나” 문제를 다루게 된다.

또 하나는 클라인과 오클라호마 출산정의연합(Cline v. Oklahoma Coalition for Reproductive Justice)의 대결이다. 이것은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을 주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다.

마지막은 하비로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반대 소송이다. 이 소송은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전망이다. 하비로비 외에 다수의 기업과 단체·학교들이 이 낙태 조항으로 인해 행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제10항소법원 인정, 제3항소법원 부정, 제6항소법원 부정 등 법원들마다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다. 종교 자유의 기준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개인 뿐 아니라 영리 목적의 기업도 종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가, 사주의 종교적 신념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사주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종교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직원의 낙태 및 피임에 필요한 건강보험 비용을 기업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비로비는 오바마케어 관련 소송에 가장 앞장섰던 기업이다. 하비로비는 제10순회 항소법원에서 “수정헌법 아래 하비로비는 종교적 가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후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에서 승소했으며, 이에 보전복지부는 즉시 연방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상고한 것이다.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 유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면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둘러싸고 진행될 이번 소송은 “오바마케어가 영리 목적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주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게 된다.

“창조적 신앙으로”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매월 한차례 LA·OC지역서 정기세미나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회장 석종규 목사)가 주최한 제1기 4차원 영성 세미나가 지난 10월 5일(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옥스퍼드팰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강사로 나선 석종규 목사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말하는 4차원의 세계란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를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각, 믿음, 꿈, 그리고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신앙마저도 창조적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원의 영성에 대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소망하고,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

루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라”고 권면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제이슨 전 선교사는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더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기도 가운데 대화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강조.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은혜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는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LA와 OC 지역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문의: (213) 591-6757

오렌지남성성가단 “기독교문화 전파에 힘쓸 터”

교회연합과 단원간 성숙한 교제가 창단 목적

오렌지남성성가단(가칭)이 창단 예배를 드리고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 25일 부에나팍 소재의 한 식당에서다.

이날 오렌지남성성가단 준비위원회가 드린 창단예배 1부는 김영남 장로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이병선 목사가 “흐름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시150)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박학선 목사가 축도함으로 순서를 마쳤다.

서양향 장로는 성가단 창단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교회음악을 통해 복음전도와 기독교문화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교회간 화합을 도모하고 단원간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4백여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에서 한 명씩만 참가해도 금세 규모가 커진다”며 “이달 첫 연습일에 1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휘자 서문욱 목사는 “OC지역에 순수하게 교회음악을 공연하는 성가단의 필요성에 대해 이전부터 많이 논의돼 왔다. 많은 교회가 함께 동참했다면 한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그간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동양선교교회, 다운니제일장로교회 성가대를 비롯, 남가주장로성가단, Joyful Mission Chorus, 레위남성성가단 등 여러 단체에서 지휘자로 활동해왔다.

오렌지남성성가단 단원 자격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거주하는 구원의 확신을 지닌 크리스천 남성(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으로, 교회음악(성가대 또는 찬양팀)의 경험과 음악적 소질이 있어야 한다. 교파 불문. >문의: (213) 200-1216



오렌지남성성가단(가칭) 준비위원들이 창단예배 후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베스트 셀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저자 하득희 교수의 기적의 영어회화

베스트 영어훈련원

■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26기 훈련생 모집

■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영어 훈련원

■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초로 교육화한 훈련원

LA 한인타운	플러튼
훈련기간 2013년10월 21일(월)~2014년 1월 8일(수) 주 3회(월화수반) 훈련시간 주중반: 오전 10:00~11:40 저녁 7:30~9:10 무료설명회 2013년10월 21일(월) 오전 10시, 저녁7시30분 훈련장소 LA 베스트 영어 훈련원 3251 W, 6th, #101 LA, CA90020 (6가 + 뉴햄프셔) 등록비 580불(일시불, 교재비 포함) 접수 설명회 당일	훈련기간 2013년10월 23일(수)~2014년 1월 11일(토) 주 3회 (월화수반 / 목금토반) 훈련시간 월화수: 저녁7:30~9:10 목금토: 오전10:00~11:40 무료설명회 2013년10월 23일(수) 오전10시, 저녁7시30분 훈련장소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92833 (Brookhurst & Euclid 사이) 등록비 580불 (일시불, 교재비 포함) 접수 설명회 당일



6일 토랜스선한목자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창립 12주년 입당 감사예배

“성전 이전 통해 주님 원하시는 믿음 배워”

토랜스선한목자교회(김현수 목사)가 창립 12주년 입당 감사예배를 6일 오후 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이 교회는 창립 12주년을 맞아 SEED선교회 국제대표 이원상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지난 4-6일 ‘예수를 바라보자’(요1:29)를 주제로 부흥성회 및 입당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전광식 안수집사의 장로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날 토랜스선한목자교회의 새성전 입당을 축하하며, 많은 사역자들이 서면으로 축하인사를 보내왔다.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는 “이민자에게 내 집 장만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라며 “이제 창립 12주년 만에 자체 성전을 마련한 토랜스선한목자교회의 창립 20주년 이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여 미국사회를 회복하고, 열방의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배 목사(뉴라이프선교교회)는 “이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행복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강단을 통해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했다. 이외 많은 사역자들 및 목회자들이 교회의 경사스러운 날을 축하했다.

축사를 한 구진도 목사(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 회장)는 “사우스베이 지역에 60여개의 한인이민교회가 있다고 한다. 기독교를 훈련스럽게 하는 안티기독교 세력과 이단의 세력들이 있고, 개교회주의적 요소가 있지만 앞으로 지역 연합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입당 담사를 한 송일호 장로는 “성전 이전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며 “함께 동역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성전 이전을 통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주님께서 원하셨던 온전한 믿음을 배웠다.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한국영어훈련소의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 교육수료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하득희저 영어훈련소(김영사)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piritenglish.com cafe.godpeople.com/spiriteng

베스트 영어훈련원 (213)239-4815 (213)507-0691

LA 동문교회 김상호 담임목사 취임예배



(사진 위)동문교회 제5대 김상호 담임목사 취임예배 전경. (아래 가운데)김상호 목사가 KAPC 엘레이노회 관계자들과 예배를 마친 뒤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LA한인타운 북부에 위치한 동문교회가 6월 제 5대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예배에는 KAPC 엘레이노회 관계자를 비롯해 축하객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임시당회장인 차병학 목사(안디옥교회)가 사회를 맡았고, 민병창 장로의 성경봉독, 박영수 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엘레이노회장인 김성일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빌 3:12-21)”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성일 목사는 “동문교회의 온 성도들이 과거를 다 내려놓고 새로 취임한 담임목사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차병학 목사는 김상호 목사가 동문교회의 제 5대 담임목사로 취임했음을 선포하고 취임패를 증정했다. 담임목사에게 권면을 전한 김현인 목사(엘레이노회 서기)는 “담임목사도 개인예배에 있어 승리해야 한다”며 “혼자서 드리는 기도와 말씀 보는 시

간에 충실할 것과 모든 면에서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인들에게 권면을 전한 박은종 목사(예일한인교회)는 “지금 이 시대엔 두드러지게 잘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주는 목회자가 필요하다”며 “김상호 목사는 착하고 선하며 겸손한 목회자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상처 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김동수 목사는 “김상호 목사는 교회가 어려울 때도 성경공부 모임에 한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라며 “말씀의 능력으로 동문교회가 크게 일어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호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예수님이 담임이 되고 그 뒤를 쫓아가는 목회를 하고 싶다”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인규 기자

BIZ

한인기업, 세계 최대 규모 멕시코 염전회사와 계약 체결 연간 1백만톤 소금 수출 독점권 확보



한인자원개발업체 비즈포스트그룹 존 김(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표가 지난 7일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멕시코 기업 익스포타도라 시의 에두아르도 에르난데스 익스포타도라(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사장과 함께 계약 체결 서명을 마친 뒤 수출금급 계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LA 한인 업체가 멕시코의 세계 최대 염전회사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인 자원개발업체인 비즈포스트그룹(대표 존 김)은 지난 7일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멕시코 연방정부가 소유해 운영하고 있는 엑스포타도라사와 공업용 및 식용 소금 수출 공급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즈포스트그룹은 엑스포타도라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8만 1천여 에이커의 염전 중 147에이커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우선 20년간 이용 가능하게 됐다. 비즈포스트그룹은 앞으로 2년간 연 3억 달러에 해당하는 연간 1백만톤의 공업용 소금과 연간 5억 달러로 추산되는 50만톤 상당의 식용 천일염을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 김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과 관련 “최근 한국 기업들로부터 공업용 소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일대를 탐색해 왔고, 이번에 멕시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엑스포타도라사와의 계약 체결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산업용 소금 수급에 곤란을 겪어 오던 한국 기업에 소금을 공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비즈포스트그룹이 수출 독점권을 확보한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은 현재 유네스코가 세계 제일의 청정 해수지역으로 지정하고 KA-KOSHER 마크를 받아 생산되고 있다. 아울러 존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수출 물량을 2백만톤으로 늘리고, 향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천일염 시장에도 도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정하나 기자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말-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 3119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영아예배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찬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중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최운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박승부 장로 17,27,37,47 수료생 배출,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물이나기구나 없이 순안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
OC부활교회 (아름다운빛 뒤)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너지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넌전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요양, 성경학교노년아, 만민대상선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서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신교에 흐름, 소, 친, 초 신인의 흐름, 바른교회간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벨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r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개우고 이혼이탈목회자, 이민가정목회자, 선교영양을충족하는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ung.com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사우스 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문명(통)하여 민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최희정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이스라엘 총리 "우리 시대에 성경 예언 이뤄지고 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란 핵무기 반대 천명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시대에 성경의 예언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고 도시들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베나민 네타냐후 총리



베나민 네타냐후 총리

베나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전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제68차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이란의 핵무기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일이 항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알고 싶다. 2,500년 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 민족의 바빌론 유수 시대를 끝냈다. 그는 유명한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권리를 선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 그 이후 유대인과 페르시아인 사이에는 역사적인 우호관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 사람들이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해 방향했던 점은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먼저는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희망은 미래를 그린다. 방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미래를 보 호한다"고 말했다.

이샤야는 히브리 선지자로서, '고레스(Cyrus)'라는 바사(오늘날 페르시아) 왕이 어느 날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포로에서 이들을 해방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북핵 문제도 거론하면서 "북한은 이란처럼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이란처럼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허한 약속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동에서 핵무장한 이란은 또 다른 북한이 아닌 50개의 북한이 있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샤야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이 백성은

강혜진 기자

기사가 1면으로부터 받음

또 남성이면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학생이 여성 육상팀에 들어가 타 학생에 비해 상대 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도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적정성 혼돈은 피할 수 없고, 늘어나는 학교 안에서의 성폭행, 그로 인해 늘어나는 정신질환, 심리적 및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 원치 않는 임신과 늘어나는 낙태 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계 관계자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바로 킨더가든부터 고등학생 사이에서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사악한 일들이 학교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가정, 사회, 문화, 국가 속으로 번져 갈 것이라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 미국 사람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AB1266 법안을 폐지하는 절차인 2014년 11월 4일의 주민투표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50만 4760개의 서명을 받아내야 하는데 현재 30여만 서명이 모아진 상태다. 남가주교회는 이를 고무적으로 받아 들여 한인 이민자들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남가주교협 회장 진유철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교계가 하나되어 서명운동에 앞장섬으로 가정과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앞서 미 주류사회와 갈보리처지가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30여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현재 개교회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토렌스 한 남체인과 LA 김스전기 내 따로 마련된 부스에서 서명동참이 가능하다. 이밖에 각 지역 별로 한인마켓을 중심으로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마 부대표 강순영 목사는 "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안가려고 할 것"이라며 "문제는 교회가 무감각하다는 데에 있는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나야 한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현재 유럽 등지에서 나타나는 국제적 흐름과 같이 성 연령 철폐, 순간(默)으로 이어질 공간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명방법은 다소 까다롭다. 과거 SB48 저지가 실패한 이유도 서명개수 목표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서명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남가주교협 총무 양경선 목사는 서명시 주의할 점으로 △서명 폼 복사 불가능 △가능한 숏(Short) 폼 사용 △폼 좌우 여백 1인치 이상인 경우 무효 △작성시 테두리 넘어가면 무효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또 "반드시 훈련받은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서명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가주교협 부회장 박성규 목사는 "지난 번 SB48와 Class Act가 실패한 이유는 많은 서명을 받았지만 무효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민권자들

양식은 다음세대가치관 보호 웹사이트 www.TVNEXT.org 에서 인쇄해서 자세하게 설명돼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작성하면 된다. 지금껏 이 운동을 위해 주류사회에서 한 독지가가 50만불을 기부했으며, 한인사회 독지가도 10만불 이상을 기부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문의는 남가주교협이나 자마로 하면 된다.

▶이메일: tvnext.org@gmail.com ▶전화: (323) 735-3000(남가주교협), (323) 933-4055(자마)

美 '공립학교 예수 초상화', 9만5천 달러 벌금

반기독교적 법률단체와 무신론자 단체에 의해, 미 오하이오의 잭슨시티교육국이 예수 초상화를 내리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국은 소송으로 인해 9만5천 달러의 벌금도 물게 됐다.

있기에 이 자리에 초상화가 걸린 것이다. 우리는 이 초상화가 여기 걸리게 된 우리 커뮤니티의 문화를 모르는, 위스콘신의 도 단체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육국 소속 학교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공간이 있어,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중요한 인물들의 초상화를 전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예수도 포함돼 있었다. 이 초상화는 YMCA의 관련단체인 Hi-Y 클럽이 기증한 것으로, 1947년부터 이 자리를 지켜 왔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반기독교적 소송을 이끌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이 연합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위스콘신에 본부를 둔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RF)은 종교 분리 조항을 들어 초상화를 내리라고 경고했다.

소송에서 남부오하이오 지방법원은 "예수 초상화를 게시하는 일은 특정 종교를 전파·옹호하는 것으로 미국의 종교법에 부적절하며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라 판결했다.

필 하워드 교육감은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이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자는 법정 조정에서 들어가, 피고는 학교에 게시된 예수 초상화를 모두 철거하고 소송 비용으로 9만5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김영선 기자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의미(6)

Hellenism과 Judaism에 대한 오해들

11) 누가복음의 저자는?

<10월 3일자 11면으로부터 내용 이어짐>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샌더스박사는 누가복음의 저자를 의미하는 희랍어가 "Kata Lukas"라고 했는데, 성경학자가 아니거나 희랍어를 깊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희랍어의 카타(κατα)라는 전치사가 "…에 반하여", "…에 거슬러"의 뜻일 경우엔 2격 전치사를, "…에 따라서"의 뜻일 경우에는 4격을 취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4격을 취하므로 kata Lukas가 아니라 kata Lukan(κατ? Λουκ?ν)이다. 어느 언어나 1격을 취하는 전치사는 없다. 따라서 희랍어에서도 1격을 써서 kata Lukas라 하는 경우는 없다.

물론 명사에 격변화가 없는 히브리어는 이



서승원 목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그분이 희랍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실수라고 믿지만 저명한 성경학자가 공식석상에서 행한 강연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는 구약학자로서 히브리어를 많이 접하다 보니 아마도 희랍어와 히브리어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혹시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이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씩씩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물론 이것은 필자의 오해일 수 있다.

이밖에도 그의 강연 원고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본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계속>

[새벽강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자

하늘영광교회 목사 차 권 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자." 올해로 창립 2주년을 맞이한 하늘영광교회가 내건 슬로건이다.

하늘영광교회는 지난 6일 창립을 기념해 인근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찬양콘서트 무대를 선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차 권희 담임목사는 이날 "창립 당시 비전이었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를 다시금 목상하며 사명을 붙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도 타락하고 주의 종들마저 타락하는 시대"라며 "지난 2년간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안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고자 몸부림쳐왔다"고 말했다. 차 목사는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면 세상은 정화가 될 것이다. 단 3퍼센트의 소금으로 인해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룩함으로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교회를 넘어 가정과 사회 각처에서,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거룩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자"며 새벽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향해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다. 다음은 지난 5일 새벽에 전한 설교 요약.

<사15:1-8>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 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삼키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나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해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어가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덤나 사람의 시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찾아오자 장인은 그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삼

손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 곡식단에 불을 지릅니다.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삼손이 한 일임을 알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찾아내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에 삼손은 화가 나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바위 뒤에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삼손과 장인, 그리고 아내 3명에게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건 바로 자기 식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 고집을 마땅히 십자가에 못박는 것입니다. 갈2장23절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합니다. 공동묘지에 한번 가십시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장인도 그러했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 드린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삼손이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원수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결국 죄의 값을 받고 끔찍하게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의 장인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하기 위해선 많은 돈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딸을 구슬려 자기 친구에게 시집을 보냈고, 둘째 딸은 삼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탐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산적인 모습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장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런지 모릅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그것이 세상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남김없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나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탐심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복된 신앙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영광교회 차권희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창립기념일을 맞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아래침례교회 오후 2:0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민경엽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평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박용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허기암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E/M 영아예배 오후 12:45,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손인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방익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중·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받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장려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삼는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지 사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세리토스장로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한중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김삼도 목사, 각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지 사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2부 오전 7:30, 3부 오전 9:00. 열방사랑선교센터, 믿음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시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우대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경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 327. 4710



HQ헬스, HQ산삼 대표
최창수박사가 주선한
한국 동아일보 1면 Top
커버 스토리 -
미국 산삼 특별 취재 기행



미국 야생 산삼

제가 한 뿌리 한 뿌리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특가세일!

미국 야생산삼

1 파운드 = \$1,000

(특대 4뿌리+ 대+ 중 사이즈 산삼 - 454그램)

+ 특별 선물

구연산, 소금(\$120상당) 무료 증정

작년 가격보다

50% 이하의 파격적 가격



300년된 산삼



미국 야생산삼 도매가 최대 유통회사로서 산삼의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기업입니다.

한국 동아일보가 파견한 특별 취재팀과 함께 미국 산삼의 대량 서식지들을 탐사하면서 심마니들과 딜러들의 채취와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산삼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한국에서의 미국 산삼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8일 동안 미국 동부 아팔라치안 산맥의 산삼 서식지 중 NY, VA, NC 주 등 여러 주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왼쪽 맨 밑의 사진은 수많은 심마니들과 함께 채취한 야생산삼들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ISSUE TRACK

“동성애는 죄” 라던 조엘 오스틴 “동성애자 받아들여야”

신간 관련 허핑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공정의 힘〉, 〈잘 되는 나〉 등의 저서로 한인들에게도 매우 잘 알려진 조엘 오스틴 목사의 동성애 관련 발언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시무하는레이크우드교회는 총 교인수 4만3천5백 명으로 2007년 이래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오스틴 목사는 신간 “Break Out! 5 Keys to Go Beyond Your Barriers and Live Extraordinary Life”에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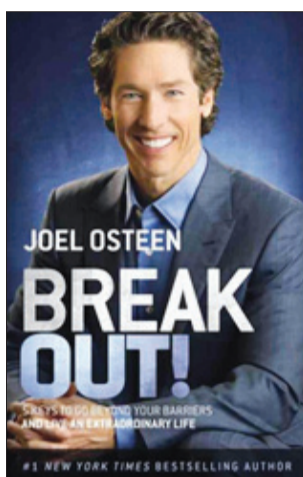
그는 신간을 소개하기 위해 허핑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으며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답하다 동성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허핑턴포스트의 방송진행자인 조시 켈스는 “(이 책은) 누가 당신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평한 후, “(이런 접근법이) 동성애자도 포함하느냐?”고 물었다.



허핑턴포스트의 방송인 허프포스트 라이브에 출연해 신간에 대해 인터뷰 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

이에 오스틴 목사는 “분명히 그렇다(Absolutely)”고 답했다. 그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며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들을 그들의 삶의 도상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스틴 목사의 생각을 묻는 질문 직후 나왔다. 최근 교황은 “교회가 동성애와 낙태가 아닌 다른 사안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보다 앞서서는 “동성애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등 포용적 발언을 했다. 오스틴 목사는 교황의 포용적 태도에 호감을 표하며 “그는 멋지다. 그의 어조와 겸손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신간

좋다”고 말했다. 오스틴 목사의 답변이 나오자 켈스는 동성애에 관한 질문을 던졌고 오스틴 목사는 “분명히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한편, 켈스가 “비기독교인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묻자 오스틴 목사는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은 반드시

시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오스틴 목사는 설교나 글, 인터뷰 등에서 단 한번도 죄악의 문제를 다룬 적이 없어 보수교계의 지탄을 받아 왔다. 이런 비난이 거세어지자 2011년 초 CNN에 출연해 최초로 “죄”의 문제를 다루었고 당시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일간지도 오스틴 목사가 죄악에 관해 말했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 인터뷰에서 오스틴 목사는 “동성애가 죄악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고, 늘 그렇게 믿어 왔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이 끔찍하다는 그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은 동성애가 죄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오스틴 목사의 이 발언에 관해 “오스틴 목사가 동성애를 용인했다”는 비난도 거세지만 “동성애는 죄이지만 교회가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모 3명 이상” 가능케 하는 법 통과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동성애 치료 금지, 트랜스젠더 화장실 등

캘리포니아에서 3명 이상의 부모를 인정하는 법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 동성애 치료 금지법(SB1172), 트랜스젠더 화장실법(AB1266) 등 성정체성을 파괴하려는 법들이 속속 입법, 발효된다.

이 법은 어린이의 부모가 입양, 이혼, 재혼, 인공수정, 동성애 등 다양한 부부 관계를 구성하는 현실에서 어린이의 법적 부모가 2명 이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전제에

서 시작된 것으로 마크 리노 상원 의원(민주)이 발의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 교육법(SB48), 트랜스젠더 화장실법(AB1266) 등을 발의한 전형적인 친동성애 성향의 인물이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한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는데 이 남성이 후에 동성애자가 되어 현 아내와 이혼하고 또 다른 남성과 부부라고 주장하며 아이의 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다. 이 때 아이의 부모는 남성-남성-여성 등 3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히 아이의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가 아

닌 부모(legal parent)가 된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법은 3명 이상의 부모가 구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에 사실상 부모의 수에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법을 발의한 리노 의원은 “어떤 아이도 자신이 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2011년 두 레즈비언이 싸워 한 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또 한 명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레즈비언이 양육하던 아이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친권을 갖고 있지 못해 결국 고아원에 보내진 사례가 있었다. 리

노 의원은 이런 특수한 사례를 예로 들며, 부모를 가능한 다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해에도 동일한 법이 통과됐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는 “어린이에게 바람직하다면 3명 이상 부모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어린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3명 이상 부모를 인정한다”로 말을 살짝 바꾸었다. 즉,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부모를 3명 이상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통적 가정 가치

관이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각각의 사례마다 법적 분쟁도 예견된다.

퍼시픽저스티스인스티튜트의 대표 브래드 다카스 씨는 “이 법 때문에 어린이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우려하면서 “그들의 건강한 삶에 관련해 거대한 갈등에 처할 것”이라 전망했다.

캐피톨리소스인스티튜트는 “어린이는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구성된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혹은,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장재효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기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이 책을 구입 탐독하실 때 영적신앙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책값으로 지불하신 10불은 한,미간 탁송운임과 구독자에게 배송 우편비로 사용될 뿐, 책값은 무료로 국제성은복음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은 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은 진실되고 충성스런 종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은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과뿐이더라!”

장재효 지음

크리스천이라면 나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의 고난과 대속의 죽임당하심에 대한 마음에 감동적인 부담감을 느끼며 살게 마련입니다. 특히 사명자로 택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심을 받는 목회자(선교사)라면 영적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치해야하고 구령성과를 위한 사명여지가 투철하여 금식기도하며 살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필생의 사명여지로 복음의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확장을 위해 애간장 태우며 노심초사 하시는 참된목자, 선한 사역자라면, 요즘같이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혼란하여 교회가 침체한채 목회자들마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 설교와 목회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 절대주권적 권위와 존엄을 훼손내지 능력하는 것같이 교회마저 세속화 추세로 변질해가는 차제에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에 의한 영감적 체질신앙은 지금도 진리정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몸된교회로 계속 부흥하며 영적으로 성숙되어 인류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 구령성과를 위해 더욱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실증적 목회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 내신 생생한 체험, 그 중 일부의 내용이 본 책에 담겨있습니다.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여지로 많은 구령성과를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말기신 사역의 영적성과를 위해 진중헌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추천합니다.”

믿지만 막연한가? 현장 알면 확실해진다

성서지리연구원 이주섭 원장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3장까지 기록된 성경의 현장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간 까닭은 성경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막연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현장과 문화를 알고 나면 성경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증거들, 그 분명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지리연구원 원장 이주섭 목사 <사진> 초청 말씀사경회가 지난 4-6일 조지아 주 마리아타 소재 크리스

탈한인교회(담임 류성진 목사)에서 열렸다.

예루살렘 대학에서 고대성읍, 히브리대학에서 고대도로를 공부하며 방문 가능한 모든 성경 유적들을 탐방한 바 있는 이주섭 목사는 이번 부흥회에서 성경의 현장들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간증을 곁들이며 큰 은혜를 풀어냈다.

4일(금)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간 아브라함’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주섭 목사는 “89년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여러 명칭들을 보며 ‘왜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성경과 여러 참고서적들을 읽어봤지만 성경 현장에 대한 느낌이 오지 않았다. 결국 그 해 겨울 3개월간의 이

스라엘 방문을 결심하게 됐다.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조그만 차 한대를 빌려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여러 날을 그곳에 머물며 기회를 주시면 성경이 기록된 현장에서 읽고 공부해보고 싶다고 기도하게 됐다”고 이스라엘에서 수학하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이주섭 목사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묻는 아브라함에게 삼년 된 소와 양, 비둘기를 쫓겨라 하신다. 이 구절은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가져다 놓고 쫓겨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

는 약속을 어기면 그 짐승처럼 된다는 의미이다. 히브리어에서 ‘계약하다’는 말과 ‘쫓겨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쓴다. 하나님은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이 쫓겨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것은 우릴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주섭 목사는 “갈릴리는 해수면에서 200M 아래에 있고 그로부터 불과 25마일 떨어진 헬몬산은 해발 2,000M가 넘는다. 계절이 바뀔 때면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갈릴리 호수에 돌개바람이 생기곤 한다. 성경의 현장과 배경을 이해하면 성경이 그리 막연하지 않다. 보다 생생히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앤더슨 김 기자



오는 11월 말 보스턴에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ReNEW 2013> 집회가 열린다. 'ReNEW'란 'Revive the New England Wave'의 약자다. 사진은 지난해 집회 현장.

ReNEW 2013 “복음의 능력”

11월 28일부터 3일간 보스턴서 개최

미국 학생선교운동의 진원지인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오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ReNEW 2013” 집회가 열린다.

‘ReNEW’라는 이름은 “Revive the New England Wave”의 약자이기도 하며 동시에 “다시 한번(Re) 새롭게 (NEW)”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는 열정을 담고 있다.

올해 주제는 “복음의 능력”이며,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KOSTA 국제이사), 권지현 목사(다음세대교회, GT 집필자), 민영기 목사(전 사랑의교회

대학/청년 디렉터), 신기영 목사(부산 지구촌고등학교 교장), 정대성 목사(콜로라도 뉴라이프선교교회), 임흥섭 목사(덴버 중부장로교회), 권순영 장로(희망의 꿈 사업 대표), 전경숙 사모(무학교회), 최영식 전도사, 김재원 아나운서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주제 강의와 성경강해, 간증 외에도 7개 분야의 기독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공별 멘토링, 추수감사절 기념 작은 음악회, 찬양과 기도의 밤, 유초등부 아이들(Kids ReNEW)의 발표회 등이 진행된다.

메사추세츠와 인근 뉴잉글랜드 지

방은 미국 기독교 영적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제1, 2차 영적 대각성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특별히 17세기에 윌리엄스 칼리지(Williams College)에서 있었던 건초더미 기도운동(Haystack Prayer Meeting)과 이후 이어진 학생선교운동(SVM: Student Volunteers Movement)은 현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다.

올해 5회째를 맞는 ReNEW 집회는 ‘기독교 부흥사의 큰 줄기를 만들어 낸 사건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건초더미에 모였던 다섯 학생의 기도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역사를 마음 깊이 간직하며, 오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열리고 있다.

ReNEW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성

보영 진행총무는 “보스턴을 포함한 미국 동북부 지역은 Harvard, MIT, Yale, Princeton, Columbia, Brown 등 우수한 명문 대학이 즐비한 곳으로 Ivy League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지성의 상아탑이 높이 세워진 곳이며 무신론적인 사상이 팽배한 곳”이라며, “이러한 도시의 한 가운데에서 기독교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 하

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소명 앞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집회에는 전 미주에 거주하는 청장년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며, 등록 및 자세한 안내는 ReNEW 홈페이지(www.renewus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요한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맥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이상명 목사의 성서로 문화 읽기

위기의 교회, 희망을 논하다(2)



이상명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총장

앞선 글(본지 9월 26일자 15면 참조)에서 교회의 위기가 중심을 잃은 외형적 성장과 권력지향화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과 생명을 분여하고 구원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알팍에 근거한 성장과 본질지향화로 나아가함을 논하였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기로 내모는 두 가지 상황을 더 살펴보고 교회가 이 세대에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모색해 보자.

셋째로, 오염된 신학과 영성에서 개혁적 영성과 신학으로

‘종교개혁(reformation)’이라는 말은 ‘다시 형성하다, 새롭게 만들다, 되살리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레포르모(reformo)’에서 나온 말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기존의 신앙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와 교리를 창조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잊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내는 재발견자로서 자신을 기억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복음의 재발견’에서 출발했다.

다시 말해 잊어버린 것은 복음의 정신이었고, 그 복음의 정신에 따라 살아 가려는 실천이었다. 그 정신과 실천은

단 한 번이 아닌 언제나 개혁하려는 마음과 실천을 요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표어가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이다. ‘개혁’은 현재진행형으로서 부단히,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에는 ‘개혁’이 절실하지만, ‘개혁’이라는 말처럼 쉽게 남용되는 표현도 없을 것이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에 따른 교회의 변신을 개혁과 혼동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나아가 개혁의 주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허다하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있는 교회는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사회보다 앞서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개혁으로부터 벗어난 성역(聖域)이요 무풍지대인 것처럼 여긴다면, 이미 그 교회는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아니요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범람하는 거짓 예배, 위장된 교훈, 잘못된 확신, 그리고 헛된 열심이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는 요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정신에서 비켜 간 것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비판을 요구한다. 개혁은 무엇보다도 잘못된 구태와 관행에 대한 냉철한 비판에서 시작된다. 자기비판과 개혁에 소홀하거나 그것을 멈추는 교회는 언제나 약화되고 변질될 수 있다. 언제나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개혁된 교회일 수 없다.

그동안 교회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강단에서 공식처럼 외치고 있는 동안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함께

연동해야 하는 ‘실천’은 유실되었다. 여기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 종교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차고 넘치는 은혜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자연스런 응답으로서 실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구원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동적인(dynamic) 믿음과 실천적(practical) 영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결국 정적(static) 개념 안에 갇힌 채 박제된 믿음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믿음을 통한 칭의(justification)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이후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성화(sanctification)와 영화(glorification)의 과정(롬 6:19, 8:30)은 생략한 ‘반쪽 복음’을 가르쳤다. 이러한 신학적 오류는 교회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거룩함의 뿌리이며, 거룩한 삶의 첫 걸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거룩한 삶의 시작이자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비밀이다. 이제 교회는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루어가는 구원(빌 2:12)의 온고임(ongoing)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행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을 양육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미주지역뿐만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강과 부’의 복음과 ‘변영의 신학’은 부와 건강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지표로 내세운다. 따라서 변영의 신학을 외치는 목회자들은 품었던 삶의 야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 인으로서 겪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의 은총을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증거라 하였다. 그렇다고 루터는 하나님 믿는 삶이 성공과는 반대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루터는 신앙의 기본자세가 바로 ‘죽음과 낮아짐’ 그 자체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최고봉은 그가 가장 낮아지고 처절하게 죽었던 십자가의 근저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설의 진리를 배제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는 야성적 영성을 상실할 때 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이미 탈선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세기 교회는 20세기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경건주의의 사조에서 이탈하여 이기적인 믿음과 신자유주의 질서로의 편승, 탐욕, 무관심 등에 휩쓸려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해 본다.

마지막으로 무너져가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복원하라

현대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성이 저급한 세속 문화와 그 가치의 급속한 확산과 침투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 가치에 대한 도전, 종교다원적인 환경의 심화, 가정의 해체, 동성애의 확산, 교회의 대형화로 인해 성교 계층과 인종을 초월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실천’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허공을 맴돌 뿐이다. ‘군중 속의 고독’이 교회 바깥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교회 안팎의 지극히 작은 자(마 25:40, 45; 눅 15:7)를 소외시키지 않고 그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토대 위

에서 함께 말씀과 밥상과 삶을 나누었던 교회 공동체만이 영적이고 생명적인 관계 위에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충만한 교회이다. 교회가 원자화되고 따뜻한 생명적 관계가 해체될 때, 교회는 세속화되기 십상이고 복음의 정신은 희석된다. 아버지(하나님)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요 10장)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요 15장)가 암시하듯 영성적 관계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약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가 교회 존속과 성장과 부흥의 관건이 될 것이다.

교회의 위기는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속에서도 있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위기만으로 보지 않고 각성과 쇄신과 성숙을 위한 기회로 삼는 태도이다. 현대교회가 이전보다 심각하게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고 내적인 토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잠재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그 생명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를 혁신하고 거듭나지 않은 채 현재 타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히 반등(反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맹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전의 구태를 벗어던지고 인습적 지혜와 세속적 가치를 복음적 가치와 회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전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위기의 교회가 그 위기를 넘어 희망과 생명을 세상에 분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10)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갈등의 원인은 육체가 바라는 것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고 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 때문이다. 육체가 원하는 쪽을 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육체가 원하는 것 가운데 방탕함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육체의 소욕에서 떠나라(갈 5:17, 21)

방탕한 생활이란 무절제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흔히 ‘방탕함’이라 하면 성(性)적 무절제 혹은 돈의 무절제한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절제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 파탄을 맞게된 가정을 여럿 보았다.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눅 15:11-32)가 나온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탕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이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최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절제하지 못한 생활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면 막된 말을 하게 된다. 막된 말은 상대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관계에서도 점차 멀어지게 만든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정제되지 않은 분노가 담긴 말을 하게 되면 점차 사랑이 식어진다. 심각한 경우 가정 파탄과 부부 이혼이라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된다.

방탕함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탐욕에서 떠나게 하고,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머무르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기도는 내 안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기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롬 7:21-25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고 했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고백했다.

오늘날 방탕함의 생활들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의 방탕함과 언어의 방탕함을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절제된 생활이 방탕함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에 마음을 두고 살자는 것이다.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글=이영두 목사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마크 드리스콜 | 두란노 | 332쪽

최근 <결혼은 현실이다>에 이어 마크 드리스콜 목사가 두란노에서 펴낸 두 번째 책. 누구나 한 번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어느 인생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두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당신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책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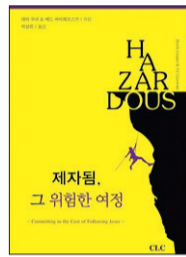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
티모시 폴 존스 | 생명의말씀사 | 160쪽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소그룹 안에서 친밀감과 책임감을 경험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결론지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임을 강조한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신앙과 영적 훈련에 책임이 있다.



제자됨, 그 위험한 여정
데릭 쿠퍼 외 | CLC | 320쪽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삶에 대해 성경 속 인물들과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자상하게 일러준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나의 교리나 종교생활로 이해하고 신앙과 분리된 삶을 살거나 기복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일러준다.



성경, 깜짝 놀랄 숨은 이야기
이창훈 | 살림 | 316쪽

성경은 '오류 없는 신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어야 한다. 그 '손가락'에 적힌 내용을 '민느냐 안 민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재는 척도일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책은 이 점에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일종의 예방주사 역할을 하고, 더 깊어진 신앙과 만날 수 있다.



REVIEW

맥그라스가 쓴, 기독교 사상에 대한 서론적 개관

교부시대부터 현대까지, 교리의 역사적 발전 및 배경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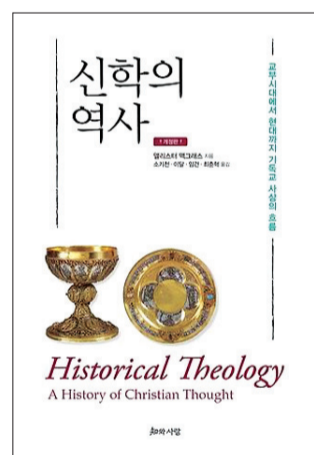
교부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을 정리한 <신학의 역사>는 잘 알려진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E. McGrath) 교수의 'Historical Theology' 완역판을 10여년 만에 다시 펴내면서 네 명의 신학자(최준혁·이달·임건·소기천 목사)가 번역을 분담했다.

'역사신학'을 소개하기 위해 쓰인 이 책은 현안에 대한 개괄적 상황 묘사로 시작해, 선별된 주요 현안에 관한 구체적 묘사로 완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개괄적 상황 묘사만큼의 분량을 구체적 사례 연구에도 할애하고 있어 입문서로 적절하다. 이는 독자들이 하여금 기독교 신학 발전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맥그라스 교수는 역사신학에 대해 "기독교 교리의 역사적 발전을 연구하고, 교리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을 확인하려는 신학적 탐구의 한 부분"이라고 소개하면서, 교회사 및 조직신학과의 차이점을 서론에서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학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

그는 "역사신학은 과거엔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조직신학자들에게 알려주고, 어떤 진술의 형태를 초래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교육적·비판적 역할을 감당한다"며 "기독교 신학의 특징은 특정한 문화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경험이라는 특수성에 있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구현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통찰과 한계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신학은 그 현안을 향한 '현재 접근의 장단점'을 이해시키면서 '교육적 도구'로서 기능하고, 어떤 교리의 발생 상황을 돌아봄으로써 '비판적 도구'로서 활용된다.

저자는 편의상 기독교 사상사를 교부시대(100-451년), 중세와 르네상스(500-1500년), 종교개혁과 개혁후기(1500-1750년), 근대(1750년-) 등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초대교회가 아니라 교부들로부터 시작하는 것만 봐도 이 책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교부시대에서는 아리우스·아폴리나리스·네스토리우스·도나투스·펠라기우스 등 주요 논쟁들과 삼위일체·신앙과 철학 등에 대해, 중세시대



신학의 역사
알리스터 맥그라스 | 지와사랑 | 592쪽

설의 본질 등 종교개혁의 신학적 논쟁점에 대해, 근대에서는 역사적 예수 연구나 부활 논쟁, 20세기 삼위일체론, 이웃종교 접근 자세 등 현대적 이슈들을 각각 사례연구를 통해 다루고 있다.

두툼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를 "기독교 사상에 대한 서론적 개관"이라 표현하고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관심을 갖게 된 특정 신학자나 시대, 교리나 신학적·교회사적 전승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 "더 읽을 책"에서 적당한 자료들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수많은 자료들을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초보 독자들을 위해 '신학용어 해설'도 부록으로 실어 놓았다.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츄츄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4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50

한달분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뺀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중국판 ‘설국열차’ ... 중국 허난성 대기근의 기록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맨 끝 칸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매일 사람을 사냥해 인육을 먹었다는 고백이 등장한다. ‘인간이 인육(人肉)을 상적 식품 또는 상식(常食)으로 먹는 풍습’을 카니발리즘이라 할 때 이것은 카니발리즘도 아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1942년 중국 허난성에 몰아닥친 대기근은 결국 인육을 위한 인간 도살 끝에 3백 만 명 이상의 죽음으로 귀결되었다. 왜 이리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 중국의 허난성은 설국열차의 맨 끝 칸과 다를 바 없었다. 엄청난 가뭄이 이 지역을 덮었고, 작물은 전부 타들어갔으며, 그럼에도 정부는 균량미를 거둬 갔다. 이 넓은 지역에서 먹을 것이 모두 증발해버렸다.

“피난민들은 손톱을 씹고서야 자

신이 먹은 것이 인육으로 만든 만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누구도 상관하는 이가 없었다.

(...) 서쪽으로 가는 기차가 통관역으로 들어오는데, 그 양옆에 ‘인육 덩어리’를 가득 매달고 있었다. 바람에 말라서 베이컨처럼 납작해진 것도 있었다.

(...) 차오리 사에 기거하던 어느 부부는 진땀을 먹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잡아먹힐 것이 무서워 어두운 밤을 틈타 도망가다가 길에서 굶어 죽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확신이 사람들의 심리를 휩쓸 이후 허난 대탈출이 감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허난성을 빠져나갔다. 생존자 마오 할머니는 당시 서쪽으로 피난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차 말바닥에 있는 차축을 겨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어머니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꼭 붙들어야. 놓치면 죽는다.”

책은 3백만 명이 죽은 대기근이 결코 자연의 탓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함으로 비롯된 인재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장제스 국민당 정권의 실정(失政)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는 1938년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시간을 벌고자 황하의 독인 ‘화위안커우 제방’을 폭파한다. 독 범람으로 무려 89만명이 사망했지만 일본군은 방향을 틀어 다른 곳을 점령해 버렸다.

성 정부는 정부에 거짓보고를 올렸고 주변의 다른 성 사람들은 허난의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 눈 몇마 지기를 팔아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



1942 대기근 | 멩레이, 관궈평, 귀샤오양 | 글항아리

기도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푸성귀는 물론 나무껍질조차 땅땅 사라져버렸다.

수원(水源)이 파괴되면서 식량재배 면적은 이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수로와 우물은 버려졌고 가축도 사라지고 말았다.

책은 1938년의 잘못된 결정으로 허난 성의 농지면적이 급속히 줄어든 것, 그 이후 시작한 지독한 가뭄을 1942년의 대기근과 연결시키는 근거들을 계속 제시한다.

매뚜기 떼의 습격, 자식을 팔아넘기는 부모, 피난의 행렬,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정부와 맞선 사람들 이야기, 버림받은 백성들의 반격 등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그런 뒤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인터뷰에서 얻어낸 일화를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대조함으로써 사라진 역사를 복원한다.

저자들은 말한다. “우리가 끝내 잇는다면, 또 다른 대기근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김은애 기자

[예수님 마음으로 책읽기] 365일 날마다 감사

‘감사 연습’ 으로 하나님 뜻 이루는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완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은 힘들겠지만, 날마다 감사를 연습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외모가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깨닫는 사람만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감사의 정도가 부족하다면 이 책을 통해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 책은 전광 목사님이 본인의 책 <평생감사>에 대한 묵상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야기도 있고 깨달음을 간달하게 적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1월 18일 묵상 내용인 ‘감사촌 불평촌’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마을이 이웃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

사촌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슨 일이든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했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너무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런 열매에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싸인 눈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불평이 습관인 것처럼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꽃의 가지만 보입니다. 반대로 감사촌에서 사는 사람은 평생 감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가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은혜를 감사로 받지 못하고, 불평과 비난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부디 하나님 자녀다운 감사의 영혼이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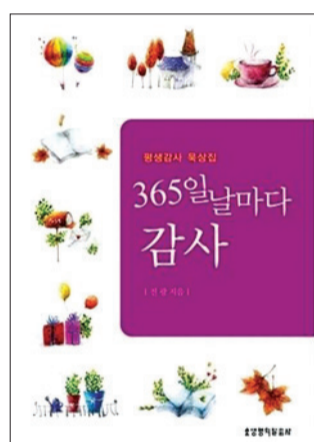
1월 26일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 여성이 외모에 갖는 불만족도가 가장 높다

고 합니다. 제 시각으로 동남아시아나 다른 아시아 국가 여성들을 볼 때, 한국 여성의 외모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체형관리업체 ‘마리 프랑스’가 외모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한국 여성의 80%가 외모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또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여성의 82%가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고 하고요. 그만큼 자신의 체형이나 외모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일든지 부족함을 느낄 때는 불만을 갖기보다 그 속의 장점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불감증’이 왜 생길까 생각해 봤습니다. ‘차이’를 ‘틀림’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나만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틀린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과 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기 쉽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임시를 앞둔 학생이 수업 중에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학생은 당황한 기색으로 혼자 중얼거렸



365일 날마다 감사: 평생감사 묵상집 전광 | 생명의말씀사 | 408쪽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게 되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달라 집니다.

‘긍정적 사고방식(Positive Thinking)’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이 많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준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팽배한 요즘, 긍정적인 감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감사 이야기가 많습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며, 경건의 연습을 한다면, 분명 우리의 인생은 더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훈 목사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u.edu www.wc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어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티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깍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티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깍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티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0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철공 용접, 게이트 모터 수리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경남 철공소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시온마켓 내 **치우차우만두**

- 짬뽕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줄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나서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전단지

문의: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서툰 번역 때문에 채택 안 된 한국 찬송들 안타까워”

PCUSA 새 찬송집 심사위원 활동한 허정갑 교수



2013년도 미국 장로교(PCUSA) 공식 새찬송가 배포와 관련, 선곡위원회 내 15인심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컬럼비아 신대학원 허정갑 교수(한미목회연구원소장, 사진)와 인터뷰했다. 다음은 허 교수와의 일문일답.

- 찬송가 선별 작업은 누가 했나?

미국장로교단의 총회출판사인 웨스트민스터 존 녹스 출판사가 '회중 찬송 선곡위원회 PCOCS'를 조직했다. 장로교단 소속 교회 음악 지도자 중 2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의 지원서를 심사해, 15명의 위원들을 선별해 구성했다.

여기에는 투표권이 있는 찬송가 편집장, 투표권이 없는 총회 예배부총무, 출판사 대표, 장로교단 교회음악인협회 총무, 카피라이트를 돕는 직원 한 명, 마케팅 담당 전임 직원이 포함됐다. 찬송가 제작 작업을 위하여 배당된 전임직원은 2명이고, 파트 사무직원은 1명이다. 나머지 18명은 자원봉사로 시간을 쪼개어, 5년 동안 1년에 4번씩, 한 번 모일 때마다 2박3일의 짝 찬 스케줄로 선곡 작업을 했다.

- 위원회의 활동 역사와 특징은?

“2008년 9월 발족해서 시작됐다. 임기는 5년이며, 이 위원회는 그 기간 동안 신학, 선교, 다양성, 예배 실제양식, 음악성, 회중의 공동 생활 등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로 찬송들을 선곡했다.”

- 찬송집에 어떻게 후보곡들이 올라오는가?

“후보 찬송들은 익명으로 위원회에 올라온다. 편견없는 심사를 위해 작사가, 작곡가, 날짜 등 모든 정보가 삭제된 채 심사 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기존 찬송곡들에게 약 5천개가 넘는 찬송들이 후보로 새로 제출되어, 이를 심사했다.”

- 채택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위원들의 2/3가 찬성해야 한다. 이런 채택 과정 투표를 2-5차례 통과해야 한다. 특히 통과 과정 하나 하나를 거처나가기 위해 각 찬송곡들은 고유의 장점이 분석되어야 한다. 가사가 명쾌하다든지, 신학적이다든지, 언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든지, 음악 소절상 노래하기 좋다든지, 연주하기 좋다든지, 악기 배열상이 있다든지 무엇이든 독특한 장점이 있어야 한다. 범기독교적인 특징도 하나의 요소다. 독특하고 외로운 목소리를 대변하는 곡들도 있지만, 장로교단 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노래여야 한다.”

- 선곡 위원회내 구성원들의 배경은 어떤가?

“한국계는 본인(허정갑 교수)이 유일하다. 백인 남성이 5명, 백인 여성이 7명, 중국계 여성이 1명, 흑인계 남성 1명 등이다. 전문적인 배경은 다양하다. 대학교수로서 신학자로부터, 목회자, 음악 목회자, 교회음악 연주자, 신학대 예배음악 전공 교수 등이다. 위원들의 연령 또한 다양한다. 이 중 25세 미만의 청년 대표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5년의 작업기간이 지나며 이들도 이제는 30대가 되었다.”

- 다양한 배경만큼, PCOCS위원들의

접근방법과 시각도 다양할 것 같다.

“그렇다. 위원들이 모두 같은 마음은 아니다. 다른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다. 어떤 찬송곡은 절대 다수의 위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반면, 대부분 찬송곡은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찬송곡의 가사는 개신교 신학 전통에 거슬리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고, 어떤 곡들은 음악적으로 너무 복잡하거나 노래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너무 고음이나 저음이 있다든지, 리듬이 어렵다든지, 공감하기 쉽지 않은 곡들도 많았다. 어떤 후보곡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현장에서 불리지 않은 곡들도 있었다.”

- 이번에는 전체 몇 곡이나 심사 대상에 올라왔고, 몇 곡이나 채택되었는가?

“교단 소속 교회들은 너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장로교 신하 소속 교회와 학교, 선교단체 등 관련 기관만 1만 개가 넘는다. 따라서 교단 총회 발간 찬송집에 들어갈 찬송곡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배경의 회중들의 취향에 맞는 찬송곡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

기준은 장로교의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찬송곡을 골라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골라낸 찬송이 853곡이다. 1만 곡이 넘는 후보곡 가운데 선별해낸 것이다. 한국어 찬송곡은 30여개가 후보로 올라 12곡이 선정됐다.”

- 이 가운데 한국 찬송곡은 12곡이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언어나 국가별 적정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가?

“할당량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PCUSA가 선교하여 관계가 형성된 나라와 민족의 찬송을 우선으로 찾게 되었다. 미국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 및 예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더 큰 비중과 가치를 두었다.”

- 이번에 후보들로 고려된 한국 찬송곡은 전체 몇 곡이었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가?

“후보곡들로 올라온 한국 찬송은 30여곡이었다. 이 중 12곡이 선별됐다. 10곡이 새로 올랐고, 2곡은 지난 번 찬송집에 있던 것이 다시 선별됐다.”

- 새로 채택된 것과, 있다가 탈락한 곡들, 남아있는 곡들은 어떻게 선택됐나?

“김활란/이동훈의 '갑갑한 밤'과 전영택/박재훈의 '어서 돌아오오'가 다시 채택되었고, 1990년도 교단찬송가에 실려있었지만 이번 새 찬송가에 수록되지 못한 곡들은 '이전에 예수를 내가 몰라'와 '아리랑곡에 맞춘 노래'가 있다.”

후보곡들로 추천된 곡들 가운데에는 '사철에 봄바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리고 '부름받아 나신 이 몸' 등 한국교회 애창곡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번역된 영어의 표현이 서투르고 미국교회 회중에게는 잘 불리어지지 않을 우려로 인하여 채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채택된 찬송곡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교회 회중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초월해서 장로교의 공통적인 신앙에 포함되는 것들이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쉽게 불리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 순서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전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 찬송곡집에 영어로 번역된 것만 표기되는가? 아니면 한국어와 함께 표기되는가?

“이번 새 찬송가에는 우리말 한글 그대로 들어갔다. 이전 찬송가(1990)에는 한글을 로마 알파벳으로 표기했는데 읽기에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영어가사와 한국어 가사를 같이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단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한국어 가사는 대부분 약보 및 부분에 표기됐다. 한국계 찬송 12개 이외에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와 같이 잘 알려진 12개의 찬송에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영어와 함께 표기되어 다문화 예배를 하나의 찬송가를 통하여 드릴 수 있도록 했다.”

-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찬송곡들이 미국 장로교단 대표 찬송곡집에 들어갈 수는 없는가?

“영어로 잘 번역된 찬송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 찬송의 세계화는 더 빠를 것이다. 이번에도 더 많은 한국계 찬송이 첨가될 수 있었으나 영문으로 사용되어지는 찬송이 많아서 소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번역 작업을 꾸준히 한다면 다음 찬송가 발행 시점에는 더 많은 한국 찬송이 국제적으로 불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장로교회에서는 이 찬송집에 올라온 찬송곡만 불러야 하는가?

“아니다. 각자 교회의 정서에 맞는 찬송곡을 부르라고 총회에서는 권유한다. 총회는 다만 교회 현장에서 찬송곡을 고를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보편적인 장로교 찬송곡을 편찬한 것이다.” 새 PCUSA 새 찬송가는 웹사이트 <http://www.thepresbyterian-leader.com/Forms/Hymnal-Order.aspx> 에서 구입할 수 있다.

/컬럼비아신대원 한미목회연구소

미국장로교 새찬송가에 한국인 찬송 12곡 등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등 10곡 신규 진입

'어서 돌아 오오' 등 한국인이 작사·작곡한 찬송 12곡이 채택·등재된 2013년도 미국장로교(PCUSA) 공식 찬송가 "Glory to God"(WJK Press 2013)이 배포되기 시작했다.

미국 장로교단은 10월부터 새찬송가를 교회와 개인과 단체에 공식 구매 주문받는 등, 시중 발매를 시작했다. 이 찬송곡은 PCUSA 소속 교회 공식 예배에서 불리게 된다.

이번 찬송곡집에는 1만여곡이 넘는 후보곡들 가운데 지난 5년여 동안 PCUSA 찬송곡선별위원회에서 선별한 853곡이 실려 있고, 이 가운데 12

곡은 한국 찬송곡이다. 한국 찬송곡은 영어로 번역돼, 한국어와 동시에 게재돼 있다.

이번 PCUSA 찬송곡선별위에서 활동해 온 컬럼비아 신대학원 허정갑 교수(예배학·한미목회연구원소장)에 따르면, PCUSA는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찬송가, 복음성가, 현대기독교음악(CCM), 경배와 찬양 음악에 대해 심사를 벌인 뒤, 곡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인 찬송곡 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등 10곡은 새로 선정됐고, '갑갑한 밤', '어서 돌아 오오' 2곡은 지난 1990년도 찬송곡집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 시판에 들어간 미국장로교 2013년 공식 찬송곡집. 붉은색과 보라색 두 색상이 있다.

에도 들어 있던 것이다. PCUSA는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thepresbyterian-](http://www.thepresbyterian-leader.com/Forms/Hymnal-Order.aspx)

leader.com/Forms/Hymnal-Order.aspx)를 통해 2013년도 찬송곡집 주문을 받고 있다.

이번 찬송곡집은 유명 찬송곡 가사를 영어·스페인어·한국어로 함께 표기해, 다언어·다문화 예배가 필요할 때 하나의 찬송가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국 찬송가 가운데 이번 PCUSA 공식 찬송가에 포함된 12개 찬송곡의 제목과 작사·작곡자는 다음과 같다.

1. "식탁에 와서", 작사: 허정갑. 작곡: 이현철.
2. "어서 돌아 오오", 작사: 전영택. 작곡: 박재훈.
3. "갑갑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작사: 김활란. 작곡: 이동훈.
4. "이슬을 내리시듯 말씀을 내리

소서", 작사: 김희보. 작곡: 김순세.

5. "오소서", 작사: 이견용. 작곡: 이견용.

6. "꿈을 꾸세, 평화의 자녀", 작사: 김해중. 작곡: 이선경.

7.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작사: 박성호. 작곡: 박성호.

8. 시편 46, "하나님은 피난처요", 작곡: 김승남.

9. "하나님을 찬양하세", 작사: 문성모&박성원. 작곡: 문성모.

10. "봄이 오면 밭고랑에", 작사: 임종락. 작곡: 김승남, 허정갑.

11.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작사: 박정관. 작곡: 박정관.

12. "내가 산을 향하여", 작사: 임승석. 작곡: 이성천.

/컬럼비아신대원 한미목회연구소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영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Fall Event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품질로 모시는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던 현대차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나보세요!

2013 Accent GS M/T

\$109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5,960 (STK# DU132319)
 PH HYUNDAI D/C \$793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142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100 (STK# 797152)
 PH HYUNDAI D/C \$1,263 MILITARY REBATE \$500
 LEASE CASH \$1,000 COLLEGE REBATE \$400
 VALUED OWNER COUPON \$500



2013 Equus Signature

\$525 +TAX

DEMO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0,170 (STK# 064363)
 PH HYUNDAI D/C \$10,000 MILITARY REBATE \$500
 COMP. OWNER COUPON \$1,000 COLLEGE REBATE \$400



스티브 장
626.723.3336



에드윈 김
626.610.6570



로버트 정
323.839.7074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중개인으로부터 차를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 없이 푸엔테힐스 현대를 통해
직접 구매하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